



보도 일시	2023. 1. 31.(화) 조간 2023. 1. 30.(월) 11:00	배포 일시	2023. 1. 30.(월) 06:00	
담당 부서	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	책임자	과 장	이민중 (044-200-5850)
		담당자	사무관	서상대 (044-200-5857)

지난해 전 세계 해적에 의한 선원납치 피해 96% 감소

- 해양수산부, 2022년 전 세계 해적사건 동향 발표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가 1월 30일(월) 발표한 ‘2022년 전 세계 해적 사건 동향’에 따르면 ‘22년 전 세계 해적 사건은 ‘21년보다 소폭 감소(132건 → 115건, 약 13%)하고, 몸값을 요구하는 선원납치 피해는 큰 폭으로 줄어든 것(57명 → 2명, 약 96%)으로 나타났다.

* 전 세계 해적사건 : (‘18)201건 → (‘19)162건 → (‘20)195건 → (‘21)132건 → (‘22)115건

** 전 세계 선원납치 피해 : (‘18)83명 → (‘19)134명 → (‘20)135명 → (‘21)57명 → (‘22)2명

지난해 해적 사건 분석 결과를 보면 전 세계 해역별로 해적 사건의 형태와 특징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선원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기니만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선원납치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(57건 → 2건) 대신, 최근 화물을 탈취하는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. 육지로부터 약 200해리(약 370km) 이상 떨어진 선박에 승선하여 총기로 선원을 위협하고 준비된 배를 이용해 화물(유류)을 이송·탈취하는 등 수법이 전문화·고도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

다만, 이러한 해적 사건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아시아 지역은 전년 대비 해적피해가 약 19% 증가(59건 → 70건)하였는데, 이는 ‘20년부터 급증했던 싱가포르 해협 부근에서의 해상강도 사건이 지난해에도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다. 중·남미에서는 해적 사건이 약 33%가량 크게 감소(36건 → 24건)하였으나, 아직도 보안이 취약한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한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.

한편, 청해부대가 파견되어 선박 호송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소말리아·아덴만 해역에서는 지난해 해적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.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연합해군의 현지 활동이 확실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,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소말리아 내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해역에서 해적 활동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.

이민중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“해적 사건이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지만, 서아프리카·싱가포르 해협 등에서 위협은 여전하다.”라며, “특히 서아프리카 해역 등 위험해역에서는 해역별 해적 특성에 유의하여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린다.”라고 말했다.

’22년 해적사건 발생동향 분석자료는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([www. gicoms.go.kr](http://www.gicoms.go.kr)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참 고

'22년 전세계 해적사건 동향

- '22년 전세계 해적사건 총 115건 발생, 전년(132건) 대비 약 13% 감소
 - * 선박피랍 3건(전년 1건), 선원납치 2명(전년 57명 대비 대폭 감소) 발생
 - (서아프리카) 총 19건 발생, 전년(35건) 대비 약 45% 감소
 - (소말리아·아덴만) 해적사건 없음(전년 1건 발생)
 - (아시아) 총 70건 발생, 전년(59건) 대비 약 19% 증가
 - (중·남미) 총 24건 발생, 전년 동기(36건) 대비 약 33% 감소



【해적사건 발생 건수(2018 ~ 2022)】

(단위 : 건)

구 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합 계	201	162	195	132	115
서아프리카	82	64	84	35	19
소말리아·아덴만	3	-	-	1	-
아시아	85	62	76	59	70
중·남미	29	29	30	36	24
기 타	2	7	5	1	2

*자료출처 : 국제상공회의소 국제해사국